

흑토, 황토, 백토

임락경(목사, 강원 화천 시골교회)

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흙과 물을 먼저 창조하시고 우주도 만드시고 그러기에 식물, 동물, 물고기, 다 만드시고 마지막 날에 사람을 창조 하셨습니다. 흙으로 빚어 생기를 불어 넣으니 남자사람이 되었다한다.

그런데 궁금한 것은 진흙으로 빚은 것은 확실하지만 황토로 빚었는지 검은 흙으로 빚었는지 백토로 빚었는지 궁금하다. 하나님께서도 후세에 인류가 색깔 가지고 멸시하고 싸울까봐 어떤 색깔의 흙으로 사람을 빚어 창조했노라고 명시하지 않은 것 같다. 그러니 우리도 사람색깔을 가지고 싸우거나 멸시하거나 차별하지 말아야겠다.

흰색 흙도 좋고, 검은색 흙도 그대로 좋은 것이고 황토 역시 우리가 가까이 하면 할수록 건강에 좋다. 황토를 가까이 하면 할수록 건강해진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다. 우선 황토를 이용해서 집을 지어야 되고 또 옷감에 물을 들여 입고 다니는 것은 몇 천년 전부터 인도에서 해왔고 지금도 남방불교의 승려들의 가사 색깔이 황토에서 온 문화이다. 요즈음 우리나라에서도 천연염색으로 사용하고 있다.

황토를 물에 풀어 그 물을 먹으면 여러 가지 독이 해독된다

고 한다. 특히 농약중독에도 효과가 있다고 한다. 김정덕 선생님의 황토 예찬론에 잘 나와 있다. 어린 아이도 흙을 집어먹고 벽을 긁어와 먹기도 한다. 내가 어릴 적에는 상처가 나면 어른들이 흙을 발라주셨다. 6살 때 창을 가지고 놀다 발을 찔렀는데 6살 더먹은 조카가 흙을 발라주어 상처가 그대로 아물은 기억이 난다. 그렇다면 황토는 농약이 스며들어도 해독을 시키고 있다고 보면 되겠다.

황토 중에서 찰기가 있는 황토를 가지고 그릇모양을 만들어 가마에 굽게 되면 토기가 된다. 이 그릇에 음식이 담기면 해독을 시킨다. 꼭 붉은색이나 노랑색이 아니어도 진흙이면 된다. 이 질그릇이 주로 우리가 사용해온 옹기 그릇이다. 옹기독에 물을 담아두면 정수가 된다. 옛날에 집안에 우물이 없어 마를 마다 공동 우물을 사용해왔고 옹달샘이 있어도 물동이로 길어다 부엌에 독을 두고 그 독에 언제나 물을 채워두고 썼다. 물을 채워두면 정수가 되는 것이다. 집안에 우물이 있는 이들도 그랬었다. 또 진흙을 빚어 구워 기와로도 사용했었고 술을 담을 때나 식혜를 삭힐 때도, 또 요즈음 효소를 발효 시킬 때도 옹기여야 된다.

지금 남해와 동해에 적조현상이 나타났다. 95년도에는 54일간 나타났고 피해액은 700억에 달했다 한다. 완도서 강릉까지 번졌었다고 한다. 원인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질소인 영양물질이 대량유입되면서 생겨났고 저수온에 일조량이 증가하면서 생겨났다고 한다. 이것도 역시 환경오염으로 본다지만 조선시대의 문헌에도 있다고 하니 꼭 목장 탕만은 아닌 것 같다. 무슨 수질오염만 생기면 목장 탕하는데 수질오염은 호텔이나 목욕탕, 유흥업소, 골프장에서 합성세제나 맹독성농약이 시키지, 가축 똥은 물고기가 먹는다. 아무튼 이 플랑크톤이라는 것이 담수에는 녹색으로 나타나고 바다에는 적색으로 나타난다. 이 적조를 막는다는 황토가 제일이라고 계속해서 바다에 퍼부으며 제재를 시킨다.

진흙중에 흰색을 띤 진흙이 있다 이 흙을 백토(白土)라 한

다. 우리나라 건축물이나 문화재에 백토를 사용해 왔다. 5·16 후 박정희 국가재건최고위원장이 전국 농촌 건축물에 백회를 칠하라는 령을 내렸다. 백회는 가격이 비싸서 시민들은 어쩔 수 없어 지게 지고 산으로 가서 백토를 파다가 칠했다. 우리나라는 30리 안에 거의 백토가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진흙성분이 있는 백토를 가지고 그릇을 빚으면 사기 그릇이 된다. 지명이 사기막골, 사기점골, 가마골 그런류의 지명들이 있는 곳에 주로 백토가 많아 도자기로 유명하다. 옹기가 물을 정화시키는 만큼 사기도 그 역할을 하고 물뿐만 아니라 어떤 음식이든 해독작용을 한다고 본다. 그 백토를 가지고 잘 구어 푸른색을 칠하면 청자가 되고 흰색의 유액을 바르면 백자가 된다. 청자, 백자 모두가 물병으로 써왔고 특히 술병으로 사용해 왔다. 서민들은 청자, 백자는 가격이 비싸니 옹기병에 술을 담아 논둑 밭둑으로 다니며 사용해왔다.

2년 전 강원도 횡성의 정천근 씨를 찾아갔는데 백토의 분말을 보여주며 이 백토가루를 물에 옮겨서 재초제 먹은 사람을 살린 경험이 있다고 한다. 우리가 지금 황토만 몸에 좋다고 하지만 백토도 좋은 것으로 본다. 백토 뿐 아니라 다른 색깔의 흙도 좋은 줄 안다. 물을 정화시키는 것이 맥반석, 옥, 차돌, 자갈, 모래 라고들 믿고 있으나 흙이 더 잘 시킨다. 흙 중에서 황토보다는 백토가 더 잘시키는지 모른다. 우리나라에 여주 이천지역이 수질이 좋다.

이제 우리나라 건축물 색깔이 흰색으로 바뀌어질 것으로 본다. 누가 또 백토 예찬을 해서 발표할 것이고, 이 발표와 동시에 흙 장사 할 것이고 건축업자들 장사 시작 할 것이다. 요즘 우리나라 건축물 색깔이 황토색으로 바뀌어지고 있다.

70년대 초에는 청색이 유행하더니 후반에 황색으로 바뀌어지고 80년대에는 회색으로 변하고 90년대는 다양한 화학물질의 재료와 빛깔이 유행하더니 90년대 말 김정덕 선생님이 황토집을 짓고 황토가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건강 이야기를 써서 보급 한 후부터 황토집은 급류를 탔다.

황토집을 짓고 황토칠을 한 것은 좋은 일인데 황토색 페인트가 나오고 황토에다 본드를 섞어 칠한다. 황토에다 본드를 먹인게 아니고 본드에다 황토를 섞은 것을 바르고 있다. 이것은 3년을 넘기지 못하고, 떨어지면 다시 칠해야 될 것이다.

3년 전 김 선생님 이웃마을에 강의가 있어 갔다. 가까이 왔으니 찾아볼 생각으로 젊은 목사들더러 같이 가자고 하니 찾아가도 만날 수가 없다는 것이다. 만나주지를 않는다는 것이다. 못 만나도 그냥 가보자고 갔더니 오히려 나더러 시간을 내 줄 수가 있느냐는 것이다.

왜 찾아온 객을 문전박대 하시느냐고 했더니, 황토집을 짓고 문화를 배우겠다는 이들은 얼마든지 환영하고 도와주고 싶으나, 요즘 찾아온 이들은 황토카페, 술집, 식당을 차리려고 도움을 받겠다고 찾아오는데 피곤하고 귀찮다는 것이다. 잊혀진 황토문화 애써서 되살려 놓으면 돈버는 이들은 따로 있고, 잘못 이용하여 색깔만 칠해 놓고 건강이나 자연과는 상관없이 오히려 그대로 두면 유해 발암물질은 안방까지 들어오지 않으면 황토색 발암 물질이 침실까지 들어오게 되었다.

정부에서 친환경 마을 선정해서 몇 억 원 씩 무상 지원한 돈으로 우선 마을회관, 노인회관, 생활복지시설 짓는 것도 황토집이 아니라 황토색 본드를 칠한 가짜 황토집이다.

요즘은 교회도 흙벽돌로 짓는다. 거룩한 성전을 흙으로 짓는 것 좋은 일이다. 그러나 역시 황토색 칠한 가짜 집들이 등장한다. 기분 나쁘다. 그런 교회서 기도하기 싫고 숨쉬기도 싫다. 하나님께서 지금 사람을 창조하신다면 황토에 본드를 넣어 반죽해서 사람을 만들어 코에 오염된 공기를 불어넣을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다. 갈비뼈는 플라스틱으로 대신해서 여자는 간단히 창조하시고 아담이 하와 더러 플라스틱 중에 질 좋은 플라스틱이요, 살 중에 오염된 살이라고 했을 것이다. 물론 피어넘길 뱀도 없으니 안심해도 좋고, 선악과 따먹을래도 농약 냄새 싫어서 오염된 동산 쫓아내기 전에 나와 살아야 된다.